

사례명	킨사 헬스(KINSA)의 스마트 체온계를 통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적
멘토링 팀/조/성명	Expert 3팀/4조/민하린
활용데이터	사용자의 체온 측정 데이터.
데이터분석 준비/과정/절차	<p>미국은 코로나 유행 초기,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미 발병한 환자들이므로 빠르게 추적하는 것은 힘들었다. 킨사 헬스는 자사 제품인 스마트 체온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열 증상 패턴을 밝히려 했다.</p> <p>킨사 헬스의 스마트 체온계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 병을 앓고 있는 사용자라면 체온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열 증상 패턴을 밝힌다. 측정된 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다.</p> <p>킨사 헬스는 비정상적 발열 증상에 관련한 데이터를 익명화해 분석하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패턴 또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p>
데이터분석 결과	<p>코로나 이전에도 독감 바이러스 추적을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2주 가량 앞서 진행한 사례가 있다. 독감 유행이 지난 시기에 발열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 유행으로 예보다 2~3배 많은 체온 데이터가 쌓였고, 이를 통한 분석은 더욱 효과적이었다.</p> <p>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 확산 지역을 추적할 수 있었다. 발열 환자가 급증한 지역을 찾아 실제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다.</p>
효과/성과	뉴욕 타임스 기사에도 이러한 킨사 헬스의 코로나 확산 추적이 보도되었다. 킨사 헬스는 자사 제품이 축적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하여 기존 미국의 연방 당국,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빠르게 코로나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었고,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인사이트 (느낀점, 활용 포인트)	<p>자사 제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기관보다 더 빠르게 감염병 확산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코로나 초기에는 정보가 적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처럼 자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또 이를 분석한다면 강력한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코로나와 같은 다른 감염병들이 언제 생겨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해진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